



“제주 농업재해, 복합재난 형태”

문대림 의원, 2024~2026년 시도별 피해 현황 분석
여름철 태풍·집중호우→한파·폭염 등 사계절 반복
감귤·채소 등 제주 핵심 작물 집중돼 경제적 손실 ↑

제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당근 파종이 차질을 빚고 농업용수 부족까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제주 농업재해가 연중 반복되는 복합재난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2024~2026년 농업재해 시도별 피해 현황 및 지원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집중됐던 농업재해가 최근에는 봄철 우박·냉해, 겨울철 대설·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가뭄·병해충 등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는 2024년 한 해 동안 대설·한파, 일조량 부족, 호우·강

풍, 벌마늘, 메밀 피해, 레드향 폭염 피해 등이 계절별로 연이어 발생했다. 여기에 올해는 장마 이후 기록적인 가뭄까지 이어지며 당근 파종이 어려움을 겪고, 농업용수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월동채소 피해, 봄철 강풍과 우박에 따른 벌마늘 피해에 이어 여름에는 호우와 폭염, 가뭄까지 반복되면서 사실상 연중 농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 작목 역시 감귤과 레드향, 마늘, 월동채소, 메밀, 당근 등 제주의 핵심 고부가가치 작물에 집중돼 동일한 피해 면적이라도 농가가 체감하는 경제적 손실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농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앞으로 ▷봄철 우박·냉해, 여름철 가뭄 등 새로운 유형의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작목별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 확대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과 가뭄 대응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제 농업재해는 특정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연중 반복되는 복합재난으로 바뀌고 있다”며 “제주처럼 복합적인 농업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에는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제주를 기후변화 대응 농업 복합재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과 농업용수 확충,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선제적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회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나 고기 잡았어” 1일 제2회 이호테우축제가 열린 제주시 이호테우축제장에서 관광객과 도민들이 ‘원담 고기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몸 마비될 정도로 덥다”... 온열질환자 속출

제주지역 올 여름 50명 병원 이송... 폭염특보 27일·열대야 26일째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제주에서도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시 추자면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열경련으로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남성에게 냉요법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보건지소로 이송했다.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30대 여성이 물놀이 중 열경련 마비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또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한라산 정상을 오르던 하산하던 30대 남성이 의식저하와 고열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

다. 소방은 수액과 산소를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링 등 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19분쯤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1시간 가량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10시52분쯤 제주시 화북1동에서는 3시간 가까이 운반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이 열탈진 증세를 보였다.

또 낮 12시40분쯤 제주시 삼도2동에서는 70대 남성이 화단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야외활동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달 30일까지 제주지역 온열질환자 수는 50명이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무더위가 이어지며 폭염특보 지속일은 제주시 동부 27일, 제주시 북부 26일, 제주시 중산간 20일, 제주시 서부와 서귀포시 서부·남부·동부·중산간 17일에 이른다.

또 올해 누적 열대야 일수는 제주 26일, 서귀포 25일, 고산 22일, 성산 16일 등으로 집계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영리기자

해산물 채취 60대 심정지

제주의 한 포구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19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포구에서 A씨가 물 속에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위영리기자

전기자전거 수리창고 화재

컨테이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4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전기자전거 배터리 수리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 접수 35분만인 오후 3시 19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위영리기자

전기차 인기 하반기도 계속될까

도, 6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총 1600대

중동전쟁사태로 올 상반기 인기가 급증했던 제주지역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승용차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화물차는 7일 오후 2시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배정물량은 승용 1200대, 화물 400대이며 보급 대수는 보급 여건이나 예산 소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접수가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승용 1200대 중 일반 도민은 1020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은 120대, 택시 60대가 보급된다. 화물은 일반 도민 340대, 취약계층 40대, 운송사업 20대가 배정됐다.

보조금 지원액은 승용의 경우 국비와 도비 합계 최대 980만원에서 600만원이며 화물은 최대 1550만원

에서 780만원이다. 신생아 출산가정이 다자녀 가정, 생애 첫 구매 청년 등에게는 100만원, 1차산업 종사자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은 접수와 출고·등록 모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접수가 이뤄지며 출고가 안될 경우엔 취소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도민이나 도내 소재 법인 등이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설립 중이어야 한다.

한편 제주지역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신청이 폭증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총 633억원을 확보했으나 상반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난 4월 도비 배정분이 전액 소진돼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위영석기자

폭염에 벌 활동 양성... 벌쏘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벌의 개체수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벌쏘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방이 집계한 벌집제거 출동은 총 1만 1606건, 벌쏘임 인명피해(부상)는

292명이다.

특히 벌쏘임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8월이 84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월 61명(20.9%), 9월 46명(15.8%) 등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됐다.

장소별로는 야외 122명(41.8%),

집과 마당 58명(19.9%), 상업시설 46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119구급대가 이송한 벌쏘임 환자는 20명이다.

제주소방은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8월을 맞아 벌쏘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 협력 예방 홍보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영리기자 glassy38@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